졸업한 컴과입니다.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전에 코딩에 대해 관심이 크게 없으셨다면 다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만들고 싶은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, 사실 코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도 안잡히고 어디서 부터 시작할지 모른다고 생각듭니다. 거시적으로나마 관심있는 분야 수강하며 겉햝기 식으로라도 알기에는 패캠도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. (회사에서 지원이 되니까요) 시간은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. 근데 제로 베이스에서 스스로 다 찾으시는 거 보단 시간을 줄여 줄 거 같습니다. 만들고 싶은 것을 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.

그 이후에 만들고 싶은게 정해지고 좀 더 진지하게 코딩을 하고 싶다면, youtube 든 유다시티든 관련 기초강의부터 찾으셔서 들으면 될 거 같습니다. 서점에서도 책을 사서 보셔도 될꺼고여.

어느정도 기초가 쌓이면 가급적 좋은 코드를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. leetcode 같은 알고리즘 문제 사이트를 풀며 다른사람 코드를 보는 거도 좋은 공부가 될 거고, 훨씬 간결하고 효율적인 코드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. github만 가도 다른 사람 코드 다 볼 수 있기도 하고요.

코딩이란게 워낙 자유도가 높아 삽질도 많이 할 거에요. 다행히 구글링만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삽질을 그대로 하고, 관련 지식들도 잘 정리해서 올리기도 해요.

추가로 이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부분이긴 한데, 저는 처음에 뭘 구축하려하면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쳐보며 먼저 개괄적 흐름을 잡습니다. 그리고 그 와중에 모르는 구문이나 이해 안되는 부분은 구글링을 해서 채워나가는 식으로 개발해요. top-down이랄까. 기초를 모두 잡고 시작하려하면 집중도 안되고 쉽게 지치더라구요. 워낙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을 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리고.. 완벽지향은 조금 탈피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